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1~2등급)

최다 빈출 포인트

30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된 포인트만 모은
기출족보



차례

01위	(20회 출제)	고려의 대외 항쟁	3
02위	(19회 출제)	발해	4
03위	(18회 출제)	박정희 정부	5
04위	(18회 출제)	지역사	6
05위	(17회 출제)	왜란과 호란	7
06위	(17회 출제)	1930년대 이후의 무장 투쟁	8
07위	(16회 출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9
08위	(14회 출제)	민족 말살 통치	10
09위	(14회 출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11
10위	(14회 출제)	남북의 교류	12
11위	(13회 출제)	신라 말의 사회 혼란	13
12위	(13회 출제)	6·25 전쟁	14
13위	(13회 출제)	민주화 운동	15
14위	(10회 출제)	고려의 문화유산	16
15위	(10회 출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17
16위	(10회 출제)	갑오 을미 개혁	18
17위	(10회 출제)	세도 정치 시기의 민란	19
18위	(9회 출제)	근대 문물의 수용	20
19위	(9회 출제)	조선 후기의 모습	21
20위	(9회 출제)	견훤과 궁예	22
21위	(9회 출제)	사화(士禍)	23
22위	(8회 출제)	동학 농민 운동	24
23위	(8회 출제)	정조	25
24위	(8회 출제)	무단 통치 시기	26
25위	(8회 출제)	대한민국 건국 과정	27
26위	(8회 출제)	대한민국 임시 정부	28
27위	(7회 출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	29
28위	(7회 출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30
29위	(7회 출제)	백제의 문화유산	31
30위	(7회 출제)	세종	32

* 출제 횟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1회~68회 기준

* 출제 횟수가 같은 빈출 포인트의 경우 최신 출제된 포인트를 높은 순위로 매겼습니다.



1위

[고려 시대] 고려의 대외 항쟁

합격비법 시기별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들과 군사 조직을 암기한다.

필수 암기 개념

거란 (10~11세기)	1차 침입: 거란 장수 소손녕의 침입 →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획득 2차 침입: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재침입 → 양규의 저항(흥화진 전투), 거란과 강화 체결 3차 침입: 고려의 강동 6주 반환 거부 → 3차 침입 →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 격퇴(귀주 대첩)
여진 (12세기)	- 기병(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중심의 여진군과의 전투에서 패배 -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조직* → 예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 토벌 → 동북 9성 축조
몽골 (13세기)	2차 침입: 승려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이 사살(처인성 전투*) 3차 침입: 황룡사 9층 목탑 소실, 팔만대장경 조판 - 삼별초가 몽골과의 강화에 반발하며 대몽 항쟁 전개(강화도 → 진도(배중손) → 제주도(김통정))
홍건적·왜구 (14세기)	- 홍건적 1차 침입: 이승경·이방실 등이 격퇴 2차 침입: 공민왕이 복주(안동)로 피난, 이방실·이성계 등이 격퇴 - 왜구: 진포 대첩*(최무선이 화포 제작), 홍산 대첩(최영), 황산 대첩(이성계)

필독 기출 자료

강동 6주  ▶ 고려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별무반 조직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었다. ▶ 별무반은 기병이 주축이 된 여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윤관의 건의로 조직되었으며,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향마군(승병)으로 구성되었다.
처인성 전투 살레탑(살리타이)이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병란을 피해 성 안에 있던 한 승려가 활을 쏘아 살레탑을 죽였다. ▶ 처인성 전투는 몽골의 2차 침입 당시 승려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에서 몽골군과 벌인 전투로, 이 전투에서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다.	진포 대첩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 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여러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나 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그 배들을 불태우자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 우왕 때 발생한 진포 대첩에서 최무선이 제작한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거란의 1차 침입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67·66·65·64회

여진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66·65·58회

몽골의 2차 침입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64·62·59회

삼별초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68·64·60회



2위

[고대] 발해

합격비법 각 왕의 연호를 반드시 암기하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와 이불 병좌상의 생김새도 다시 확인하자!

필수 암기 개념

건국과 발전	- 고왕(대조영): 동모산에서 발해 건국, '천통' 연호 사용 - 무왕: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 공격(대당 강경책*), 흑수말갈 공격 시도, '인안' 연호 사용 - 문왕: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통치 체제 정비, 수도 이동(중경 → 상경 → 동경), '대흥'·'보력' 연호 사용 - 선왕: 5경 15부 62주의 지방 체제 완비, 해동성국, '건흥' 연호 사용
중앙 정치 조직	3성 6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 총괄, 유교적 명칭의 6부 설치(발해만의 독자성) -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중정대와 국립 대학인 주자감 설치
경제	- 특산물: 솔빈부의 말 등 - 대외 교류: 신라도(신라), 영주도·조공도(당), 일본도(일본), 거란도(거란) 등의 교통로를 통해 교류
고구려 계승 증거	- 주민 구성: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이 발해 건국, 지배층 대부분이 고구려 계열 - 계승 의식: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 사용 - 문화: 정혜 공주 묘의 모조임 천장 구조, 온돌 장치, 이불 병좌상*, 수막새(기와)

필독 기출 자료

무왕의 대당 강경책 왕은 즉위 후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하였다. …… “흑수(黑水)가 당 나라에 벼슬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여 당과 함께 우리를 앞뒤에서 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왕은 그의 아우 대문예와 외숙 아아상을 보내 흑수를 공격하게 하였다. ▶ 무왕은 당과 연결하려는 흑수말갈을 정벌하였다.	쟁쟁 사건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있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국명(國名)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발해 왕자 대봉예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라가 반발하였다.
남북국 시대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땅이다. ▶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유득공은 발해와 통일 신라가 함께 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로 규정하였다.	이불 병좌상 이 불상은 석가불과 다보불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동경 용원부(東京龍原府)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날카로운 광배와 양감 있는 연꽃의 표현 등은 고구려 불상 조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불 병좌상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선왕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63·56·54회

중앙 정치 조직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60·51회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67·62·60회

경제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66·63·62·61회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55회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64·63회



3위

[현대] 박정희 정부

합격비법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의 경제 개발 정책을 구분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내용을 체크하자!

필수 암기 개념

수립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후 대통령에 당선됨
제3공화국 (1961~1972)	- 경제 개발: 경공업 중심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경부 고속도로 완공 - 외자 도입*: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음, 서독에 노동자 파견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고 경제 원조를 받음(브라운 각서*) - 낙후된 농촌 개발을 위해 새마을 운동 전개(1970년부터 시작) - 전태일 분신 사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함(1970) 3선 개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 편법으로 통과시킴
제4공화국 (유신 체제, 1972~1979)	유신 헌법 제정: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긴급조치권·국회의원 1/3 지명권 등 부여 - 경제 개발: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제1차 석유 파동을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극복,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붕괴	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 항쟁 등 유신 체제 반대 시위 발발,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유신 체제 붕괴

필독 기출 자료

박정희 정부의 외자 도입	브라운 각서
미국의 원조 규모가 줄어들자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재원과 시장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 모으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군사 협조 (1)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0편, 파월 추가 병력에 따르는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 추가 파병의 대가로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제공 받았다.

시간순으로 보는 박정희 정부 주요 사건

				
▶ 베트남 파병(1964)	▶ 경부 고속도로 준공(1970)	▶ 유신 헌법 공포(1972)	▶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 부·마 민주 항쟁(1979)

대표 기출문장

- 제3공화국**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62·58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55회
- 제4공화국**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67·59·58회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58회
- 붕괴**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63·59회
유신 체제에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56회



4위

[시대 통합] 지역사

합격비법 평양, 개성, 부산, 전주 등 자주 출제되는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평양(서경)*	고려 시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근대	제너럴셔먼호 사건, 대성 학교 설립(안창호)
	일제 강점기	물산 장려 운동 시작, 강주룡의 고공 농성(평양 을밀대)
	현대	남북 협상 실시, 제1·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개성(개경)*	고려 시대	고려의 수도, 만적의 난 발생
	조선 시대	송상의 근거지
	현대	6·25 전쟁 때 정전 협정 시작, 개성 공단 건설
부산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 부산 송상현과 첨사 정발 순절
	일제 강점기	의열단원 박재혁의 부산 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전주	고대	건훤의 후백제 건국(완산주)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설치,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관하던 사고 설치
	근대	전주 화약 체결
강릉	고대	굴산사지 당간지주
	조선 시대	오죽헌(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 선교장, 경포대
강화도	선사 시대	고인돌 유적지
	고려 시대	몽골 침입기의 임시 수도, 팔만대장경이 조판

필독 기출 자료

평양	개성
묘청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서경의 임원역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大華勢)이니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यो,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묘청, 정치상 등의 서경파는 인종에게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인 서경(평양)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곡은 전수린이 고향인 개성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설움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 곡의 배경인 개성의 만월대에서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 금속 활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으로,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가 남아있다.

대표 기출문장

평양 일제 강점기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하였다. 68·64회

개성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았다. 68회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63회

부산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59회

강릉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66회



5위

[조선 시대] 왜란과 호란

합격비법 주요 전투의 흐름을 반드시 암기하고, 특히 활약한 인물들을 구분하자!

필수 암기 개념

임진왜란	임진왜란 발발 → 충주 탄금대 전투* → 선조의 의주 피난 → 옥포 해전(이순신) → 사천 해전(거북선 처음 투입) → 한산도 대첩 → 진주 대첩 → 평양성 탈환 → 행주 대첩* (권율) → 휴전 협상 → 정유재란 → 명량 해전 → 노량 해전(이순신 전사)
정묘호란*	후금의 침입 →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정봉수·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함 → 정묘약조 체결(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음)
병자호란	청이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 → 조선에서 주전론이 우세해지자 청이 조선에 침입 → 김준룡(광교산)과 임경업(백마산성)의 항전 , 김상헌의 순절(강화도) →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 → 청과 군신 관계 체결(삼전도의 굴욕*) → 소현세자, 봉림 대군(이후 효종)과 김상헌 등의 척화론자들이 볼모로 청에 압송

필독 기출 자료

충주 탄금대 전투	행주 대첩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관군이 탄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 충주 방어에 실패하였다. 신립은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으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자 전장에서 순절하였다. ▶ 임진왜란 발발 이후, 부산이 함락되고(1592. 4.), 신립이 충주 탄금대 전투(1592. 4.)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으나 왜군에 대패하였다.	권율이 정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柵)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 적은 올라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맞히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 적이 결국 패해 후퇴하였다. ▶ 권율이 관군과 백성을 이끌고 행주산성에서 왜군에 크게 승리하였다(행주 대첩).
정묘호란	삼전도의 굴욕
왕은 김상헌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해 들어갔다. 이에 김류, 이귀, 최명길, 김자점 등의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 ▶ 정묘호란 발발 이후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였고,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하였다.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해 항전하였으나, 결국 항복하였다. 이후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고 강화를 맺었다(삼전도의 굴욕).

대표 기출문장

- 임진왜란**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65회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61·55회
- 정묘호란**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66회
- 병자호란**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65·57회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61·60회



6위

[일제 강점기] 1930년대 이후의 무장 투쟁

합격비법 각 단체들의 주요 인물과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필수 암기 개념

한국 독립군*	- 총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 - 중국 호로군 등과 연합하여 쌍성보·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함
조선 혁명군*	- 총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함
조선 의용대*	김원봉이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부대로 창설 -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 김원봉과 남은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함(1942)
한국광복군*	-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산하 부대로 창설 - 대일 선전 포고문 발표, 인도·미얀마 전선 투입, 국내 진공 작전 추진(실행 x)

필독 기출 자료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대전자령은 태평령이라고도 하는데, 일본군이 서남부의 왕칭현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이었다. …… 이 전투에 한국 독립군의 주력 부대 500여 명, 차이시잉(柴世榮)이 거느리는 중국 의용군인 길림구국군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한국 독립군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 혁명군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추격한 끝에 당일 오후 3시경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5일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한·중 연합군은 신빈현 일대 여러 곳을 점령하는 등 커다란 수확을 거두었다. ▶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영릉가·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하였다.
조선 의용대	한국광복군
자료는 조선 의용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결성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인도 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빗발치는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적을 향한 육성 선전, 방송, 전단 살포, 포로 신문, 정찰, 포로 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66·62회
- 조선 혁명군**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66회
- 조선 의용대**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67·66회
- 한국광복군**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 68·67회
-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66·64회



7위

[고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합격비법 삼국 통일 과정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고구려와의 동맹 시도 [642]	선덕 여왕 때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 등 여러 성이 함락되었고, 김춘추를 보내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였으나 실패함	고구려 멸망 [668]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가 멸망함
나·당 동맹 결성*[648]	진덕 여왕 때 김춘추를 당에 보내 나·당 동맹 결성	매소성 전투*[675]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함
김춘추 즉위 [654]	진골 출신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함	기벌포 전투*[676]	설인귀가 이끄는 당의 수군을 기벌포에서 격파함
백제의 멸망 [660]	- 황산벌 전투*: 신라 김유신의 군대가 백제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함 -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됨	삼국 통일 달성[676]	신라가 삼국 통일을 달성함(신라 문무왕)

필독 기출 자료

나·당 동맹 결성	황산벌 전투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무리를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하였다. ▶ 신라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 군사동맹을 제의하였고, 당 태종이 이를 수용하면서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계백은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였다. ▶ 의자왕 때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필을 얻었는데, 남겨 놓은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 되었다. ▶ 신라는 매소성에서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20만 대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사찬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설인귀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 ▶ 신라 문무왕 때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설인귀가 이끄는 당군에 승리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나·당 동맹 결성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65·62회

백제 멸망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61회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59회

매소성 전투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59회

기벌포 전투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62회



8위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합격비법 황국 신민화 정책과 병참 기지화 정책의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황국 신민화 정책	•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선전 •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강요 •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 강요 • 소학교 명칭을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개칭 • 제4차 교육령을 반포하여 조선어와 조선사 교육을 금지하고, 한글 신문 폐간
병참 기지화 정책	• 우리나라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운영 •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수탈 • 미곡 공출제, 배급제, 금속 공출제 실시 • 국민 징용령: 세계 각지의 공사 현장과 광산에 인력 동원 • 여자 정신대 근무령: 여자들을 위안부로 데려감 •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실시
주민 생활 통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제정, 국민 총력 운동 실시

필독 기출 자료

미나미 총독 연설

첫째는 **제국의 대륙 병참 기지**로서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이번 전쟁에서 조선은 대 중국 작전군에게 식량, 잡화 등 상당량의 군수 물자를 공출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 대륙의 일본군에게 일본 내지로부터 해상 수송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선의 힘만으로 이것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산업 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군수 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모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제는 조선에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고 수탈을 자행하였다.

조선 통치에 관한 방침	국가 총동원법
•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 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이 참전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한다. • 신사숭경(神社崇敬)의 염(念)을 함양하여 일본의 국체 관념을 명징(明徵)하고 …… 사상 선도를 도모하는 등 황국 신민이라는 의식을 배양한다. ▶ 일제는 지원병제, 징병제 등을 통해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였으며, 전쟁 물자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황국 신민화 정책**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68·64회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58·57회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56회
- 병참 기지화 정책** 미곡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62·60회
국민 징용령이 제정되었다. 55·54회



9위

[조선 시대]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합격비법 정약용, 박지원의 활동은 반드시 암기한다.

필수 암기 개념

중농 학파	반계 유형원	『반계수록』에서 균전론 주장 - 양반 문벌 제도·과거 제도·노비 제도의 모순 비판
	성호 이익*	한전론 주장(토지 소유의 하한선 설정) 6조 지적, 『성호사설』, 『곽우록』 등 저술, 화폐의 폐단 지적
	다산 정약용*	여전론 주장, 거중기·주교 제작, 강진에서 유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등 저술
중상 학파	농암 유수원	『우서』를 통해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등 개혁안 제시
	담헌 홍대용*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 우주 무한론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 거부 , 혼천의 제작
	연암 박지원*	한전론 주장, 「양반전」, 「허생전」 등 저술 『열하일기』를 통해 청의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에 힘쓸 것을 강조
	초정 박제가	- 상공업 활성화 주장, 특히 소비를 강조(우물론) 『북학의』를 통해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강조

필독 기출 자료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여섯 가지 죄 때문이다. ▶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죄)을 지적하였다.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田地)를 얻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전(閼田)의 법을 시행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정약용은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재는 …… 중국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거부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로 오랑캐를 몰아내려면 중화의 유법을 모두 배워서 우리 나라 풍속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이익**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58회
- 정약용** 여전론을 통해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67회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68·64·63회
- 유수원**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54회
- 홍대용**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67·65·60회
- 박지원** 「양반전」에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66·63·60회
- 박제가**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58·56회



10위

[현대] 남북의 교류

합격비법 김대중 정부의 남북 교류 내용, 주요 남북 선언(합의)문을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상설 직통 전화와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
전두환 정부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예술단 교환 공연 성사
노태우 정부	- 남북 기본 합의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되 국가로서는 불승인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 확대 등에 합의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식 선언 채택
김대중 정부	-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 추진 - 남북 정상 회담: 분단 이후 최초로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그 결과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 회담 이후 개성 공단 설치 합의, 경의선 복원 사업 진행,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사업 등 진행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 10·4 남북 공동 선언* 발표, 개성 공단 건설

필독 기출 자료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7·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남북 기본 합의서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며 상호 불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6·15 남북 공동 선언	10·4 남북 공동 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6·15 남북 공동 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한 통일 방안의 유사성 인정, 남북 교류 확대, 경제 협력 활성화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0·4 남북 공동 선언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을 강조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7·64회

전두환 정부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68·67·66회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68·61회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68·57회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68·66·65회

노무현 정부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57회



11위

[고대] 신라 말의 사회 혼란

합격비법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은 자료와 함께 일어난 시기[신라 말, 신라 하대]를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왕위 쟁탈전 전개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됨
지방 세력의 반란	• 김헌창의 난: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킴 • 장보고의 난: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세우는 것이 좌절되자 난을 일으킴
농민 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발생(진성 여왕 시기)
호족 세력의 성장	•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 •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음 • 대표 인물: 견훤, 양길, 궁예*, 왕건
6두품의 성장	• 최치원*을 비롯한 6두품들은 신라의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개혁안(시무책 10여 조)을 제시 • 지방 호족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

필독 기출 자료

원종과 애노의 난	호족(궁예)의 성장
나라 안의 여러 주군(州郡)에서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 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 진성 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진성(여)왕 6년(892) 궁예가 복원 도적 양길의 군대에 가세하였다. 양길은 기뻐하며 궁예를 잘 대우하여 일을 맡겼다.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주며 동쪽으로 보내 땅을 빼앗게 하였다. ▶ 양길의 밑에서 성장한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최치원 - 해인사 묘갈상탑기	최치원 - 시무책 10여 조
당나라 19대 소종이 중흥을 이룰 때에 전쟁과 흉년의 재앙이 서쪽 [중국]에서는 멈추었으나 동쪽으로 오니, 악 중의 악이 없는 곳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였다. …… ▶ 최치원은 신라 말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 전란과 흉년으로 인해 사망한 원혼들의 명복을 비는 해인사 묘갈상탑기를 지었다.	당에서 돌아왔다. …… 진성 여왕 8년(894)에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니 왕이 기뻐게 받고 그를 아찬으로 삼았다. ▶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하여 진성 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건의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온둔 생활을 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사회 혼란**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64회
- 농민 봉기**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68·63·62회
- 호족 세력의 성장** 체징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62·55회
- 최치원** 최치원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다. 65·64·63회



12위

[현대] 6·25 전쟁

합격비법 6·25 전쟁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전쟁 이전의 상황	애치슨 선언 발표(1950. 1.)
북한의 남침	전쟁 발발(1950. 6.) → 서울 함락 → 유엔군 참전(1950. 7.) → 낙동강 유역 에서 치열하게 전투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 전개 및 서울 수복(1950. 9.) →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
중국군의 개입	중국군의 북한군 지원(1950. 10.) → 국군과 유엔군의 흥남 철수 (1950. 12.) → 1·4 후퇴 (서울 재함락, 1951. 1.) → 서울 재탈환(1951. 3.) → 38도선 부근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
정전 회담 시작	소련의 제의로 회담 시작(1951. 7.) → 군사 분계선 설정 및 포로 송환 문제로 체결 지연 → 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1953. 6.) →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 체결 (1953. 7.)
이후의 상황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

필독 기출 자료

인천 상륙 작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은 좁은 단일 수로로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적이 기뢰를 매설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적군도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해 주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6·25 전쟁**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66·65회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하였어요. 68·66·62회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61·55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68·65회



13위

[현대] 민주화 운동

합격비법 민주화 운동의 원인과 사료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되는 김주열, 시민군, 김종철·이한열이 어느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지 함께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4·19 혁명* [1960]	•원인: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부정부패와 3·15 부정 선거 •전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의거가 전개되었는데, 이때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됨 *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2023)
5·18 민주화 운동* [1980]	•원인: 신군부 세력의 비상 계엄령 확대와 김대중 등 주요 정치 인사 및 학생 운동 지도부 체포 •전개: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신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진압 *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2011)
6월 민주 항쟁* [1987]	•원인: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이한열 등의 사망 •전개: 6·10 국민 대회가 열려 시민과 학생들이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 전개 •결과: 대통령 후보이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

필독 기출 자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 김주열의 죽음과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 선거 등이 원인이 되어 4·19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신군부의 계엄령에 대항하여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폐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박종철, 이한열의 사망과 4·13 호헌 조치로 인해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었다.

대표 기출문장

- 4·19 혁명**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경무대로 행진하였다. 58회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63회
허정 과도 정부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63·61회
-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60·58회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3·61회
- 6월 민주 항쟁**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확산되었다. 66·62·61회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 46회



14위

[고려 시대] 고려의 문화유산

합격비법 빈출되는 사원, 탑, 불상의 특징을 반드시 확인하자!

필수 암기 개념

사원	-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 양식의 건물,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의 건물, 배흘림 기둥이 특징
탑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송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탑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 조선의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줌
불상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고려 초기의 대형 철불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 시대 최대 규모의 석불,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림 -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 통일 신라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불상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 암벽에 몸을 새기고 머리는 따로 제작하여 올린 불상
청자	- 청자 참외모양 병: 별다른 장식이 없고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자기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표면을 음각해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상감법을 통해 제작됨

필독 기출 자료

안동 봉정사 극락전  ▶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고려 시대의 건축물이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내부에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석탑이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 고려 초기의 대형 철불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 고려 시대 최대 규모의 석불이다.

대표 기출문장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 양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다. 41회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고려 시대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66회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이어받았다. 60회



15위

[근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합격비법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구분하여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구분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배경	-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차별 대우를 받아 불만이 쌓임 - 일본의 경제 침탈: 일본의 경제 침탈로 쌀값이 폭등하자 하층민의 반일 감정이 커짐	- 개화 정책 지연: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견제로 개화 정책 지연 - 개화파의 분화: 임오군란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화됨
전개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이 밀린 급료로 지급됨 →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선혜청과 일본 공사관 습격 → 궁궐을 습격함 → 명성 황후가 총주로 피신함 →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 → 민씨 정권이 청군의 출병을 요구함 → 청군이 흥선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하고 군란을 진압함	개화당(김옥균, 박영효 등)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킴 → 개화당 정부 수립 → 14개조 혁신 정강 발표 → 청의 군사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남
결과	- 제물포 조약(조-일): 일본 정부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주둔 인정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조-청):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 한성 조약(조-일):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 텐진 조약(청-일): 조선에서 청·일 군대가 모두 철수함, 조선 파병 시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을 규정함

필독 기출 자료

임오군란	갑신정변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에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궐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 얼마 후 국상이 와 전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군중과는 달리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 임오군란은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급료 체불 등에 반발한 구식 군인이 봉기한 사건이다.	우정국 총판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초청했다. ……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담장 밖에서 불길 이 치솟았다. ……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되돌아와서 대청 위에 쓰러졌다.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단행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임오군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63·61회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67·65회
- 갑신정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65·61회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6·63회



16위

[근대] 갑오·을미개혁

합격비법 각 개혁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구분	제1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정치	- 개국 기원(기년) 사용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 - 과거제 폐지	- 의정부와 8아문 → 내각과 7부로 개편 8도를 23부로 개편 - 재판소 설립 - 훈련대·시위대 설치	'건양' 연호 제정 - 친위대(중앙)·진위대(지방) 설치
경제	-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 은 본위제 실시 - 조세 금납화	-	-
사회·문화	- 공·사 노비법 혁파 -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 고문과 연좌제 등의 악습 폐지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한성 사범 학교 관제 공포 → 한성 사범 학교 설립	- 단발령 시행 - 태양력 채택 - 소학교 설립

필독 기출 자료

제1차 갑오개혁	을미개혁
1.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한다. ▶ 제1차 갑오개혁 때 과거제를 폐지하여 신분의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하고, 공·사 노비법을 폐지하였다.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臣民)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라고 하셨다. ▶ 을미개혁 때 상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제1차 갑오개혁**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61·59회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64회
- 제2차 갑오개혁**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64회
지방 행정 구역을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68회
- 을미개혁**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66·64회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63·59회



17위

[조선 시대] 세도 정치 시기의 민란

합격비법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를 구분하는 키워드인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출 자료를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홍경래의 난*	•원인: 세도 정치의 폐해와 평안도 지역(관서·서북)에 대한 차별 •전개: 몰락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참여 •결과: 가산을 시작으로 청천강 이북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관군에게 진압됨
임술 농민 봉기*	•원인: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전개 - 몰락 양반 출신 유계춘의 지휘 아래 진주를 시작으로 봉기, 전국으로 확산 - 봉기 수습을 위해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정부에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 •결과: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곧 폐지됨

필독 기출 자료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봉기 지역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모(父老)와 자제, 공·사 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니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君侯)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 홍경래는 스스로 평서 대원수를 자칭하며 순조 때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 홍경래의 난 봉기군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관군에 패배하였다.
임술 농민 봉기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농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였다. 이서(吏胥)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 철종 때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대표 기출문장

- 홍경래의 난**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61·59회
세도 정치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56회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54·52회
- 임술 농민 봉기**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67·59회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67·61회



18위

[근대] 근대 문물의 수용

합격비법 필독 기출 자료의 근대 문물들을 사진과 함께 연대순으로 체크하자!

필수 암기 개념

출판	• 한성순보*: 박문국(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순 한문 신문(일종의 관보) • 독립신문*: 독립 협회에서 발행한 최초의 민간 신문, 한글판·영문판 발행 • 황성신문: 을사늑약을 규탄하는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 •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
철도	• 경인선(서울~인천)*: 미국인 모스가 착공하고 일본이 완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 경부선(서울~부산):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부설
건축	• 독립문*: 독립 협회에서 독립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 • 명동 성당*: 중세 고딕 양식의 건물 •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 •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이 대한 제국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해 세운 기구 •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식 건물로, 해방 이후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됨
교육	• 육영공원: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관립 학교 • 한성 사범 학교: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로 설립된 근대식 관립 교원 양성 학교 • 원산 학사: 덕원 부사와 덕원·원산 읍민들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사립 학교

필독 기출 자료

한성순보(1883~1884)  ▲ 박문국에서 발행	독립신문(1896~1899)  ▲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문(1897)  ▲ 독립 협회가 건립	명동 성당(1898)  ▲ 고딕 양식 건물
경인선(1899)  ▲ 최초의 철도	원각사(1908)  ▲ 서양식 연극(신극) 공연	동양척식주식회사(1908)  ▲ 일제의 경제 침탈 기구	덕수궁 석조전(1910)  ▲ 르네상스식 건물

대표 기출문장

출판 대한매일신보 -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67·64회

독립신문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55회

철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58회

건축 덕수궁 석조전 -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66회

교육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54회



19위

[조선 시대] 조선 후기의 모습

합격비법 조선 후기 문화의 경향을 알아두자!

필수 암기 개념

농업	• 모내기법(이앙법)이 확대됨 • 소득이 높은 담배와 면화, 인삼,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판매됨 •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이 전래되어 재배됨
상업	• 송상, 경강 상인, 내상, 만상 등의 사상이 성장함 • 지방 장시를 연결해주는 보부상이 활발하게 활동함
서민 문화	• 판소리와 탈춤, 산대놀이 등의 공연이 성행함 • 『홍길동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이 유행함 • 중인 이하의 계층이 문예 모임인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함 •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전기수가 등장함
그림	• 검제 정선을 중심으로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 산수화가 유행함(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 • 풍속화가 유행함 - 김홍도(씨름*, 무동 등), 신윤복(단오풍정, 월하정인* 등), 김득신(파적도*)
건축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이 건축됨

필독 기출 자료

인왕제색도(정선)	씨름(김홍도)	월하정인(신윤복)
▶ 비운 뒤 인왕산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씨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였다.
파적도(김득신)	구례 화엄사 각황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 한적한 봄날 앞마당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 조선 후기의 목조 건축물로, 팔작 지붕과 다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	▶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오층 목탑이다.

대표 기출문장

- 농업**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0회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63·61회
- 상업**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하였다. 66회
- 서민 문화** 「춘향가」, 「홍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64·57회
시사를 조직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65·60회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62·60회



20위

[고대] 견훤과 궁예

합격비법 견훤과 궁예의 활동을 구분하여 암기하고 각 국가의 수도를 확인한다.

필수 암기 개념

견훤*	• 완산주에서 후백제 건국(900) • 활동 -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경제 기반 확보 - 중국의 후당·오월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 • 한계: 신라에 적대적인 태도(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함), 지나친 조세 수취, 호족 포섭 실패
궁예*	• 신라 왕족 출신으로 출가 후 중이 되어 스스로 선종이라고 부름 • 송악(개성)에서 후고구려 건국(901) • 활동 - 강원도·경기도 일대 점령 및 한강 유역 확보 - 국호를 '마진'으로 바꾼 후 철원으로 천도하고 이후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변경 - 국정 총괄 기관인 광평성 등 여러 관서 설치 • 한계: 지나친 조세 수취, 미륵 신앙을 통한 전제 정치로 궁예가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해 축출되고 왕건이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918)

필독 기출 자료

견훤	궁예
견훤이 완산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환영하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그는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 이르기를, “신라의 김유신이 흠먼지를 날리며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러 당의 군대와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견훤은 완산주를 도읍으로 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제47대 헌안왕의 정이며 어머니는 헌안왕의 후궁이었는데, 그 성과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 왕이 궁중의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서 죽이게 하였다. 그 사람이 포대기에서 아이를 꺼내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가 몰래 받다가 실수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 쪽 눈이 멀었다. ……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스스로 선종(善宗)이라 불렀다. ▶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출가한 후에 중이 되어 스스로를 선종이라고 불렀다.

견훤과 궁예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로서 도리어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先祖)의 화상(畵像)을 칼로 베었으니 그 행위가 매우 어질지 못하였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화(禍)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신라의) 도읍을 침범하여 임금과 신하를 살해**하니 (그 행위가) 마치 짐승과 같았다. 참으로 천하의 으뜸가는 악인이로다. 그러므로 궁예는 그 신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견훤은 그 아들에게서 화가 생겨났으니 모두 스스로 불려들인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 궁예와 견훤은 신라 말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력을 키워 각각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특히 견훤은 신라를 침략하여 경애왕을 살해하는 등 신라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표 기출문장

견훤 완산주에 도읍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51회

신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61·55회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66·63·62회

궁예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36회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55회

광평성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66·65회



2위

[조선 시대] 사화(士禍)

합격비법 각 사화의 원인은 반드시 암기하고, 특히 「조의제문」은 빈출되므로 필독 기출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자!

필수 암기 개념

무오사화 (연산군)	•원인: 사람파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것을 두고 훈구파가 문제를 삼음 •전개: 연산군이 김일손 등을 처형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유배 보냄
갑자사화 (연산군)	•원인: 연산군의 측근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연산군에게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고발함 •전개: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주도한 훈구와 연루된 사람이 제거됨 •결과: 두 차례의 사화와 연산군의 폭정으로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은 폐위됨
기묘사화* (중종)	•원인: 중종이 공신 세력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을 등용하였으나, 조광조가 위훈 삭제 등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전개하여 훈구의 반발이 심화됨 •전개: 주초위왕(조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인다는 뜻) 사건 등을 계기로 조광조 등 사람 세력이 제거됨
을사사화* (명종)	•원인: 인종 외척(대윤, 윤임)과 명종 외척(소윤, 윤원형)의 권력 다툼 •전개: 소윤 세력이 대윤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숙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관된 사람까지 피해를 입음 •결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낙향하였으나 서원과 향약을 통해 꾸준히 세력을 확대함

필독 기출 자료

「조의제문」	기묘사화	을사사화
정축년 10월 어느 날 나는 밀성에서 경산으로 가다가 답계역에서 자는데, 꿈에 신인(神人)이 헌절찬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길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의제)인데, 서초 패왕(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던져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던져졌다는 말은 없는데,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심을 몰래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 조문하였다. ▶ 김종직은 단종을 의제에 빗대고, 세조를 항우에 빗대어 세조를 비판하였다.	남곤은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갇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 ‘주초위왕(走肖爲王)’ 네 글자를 써서 갇아먹게 하였다. …… 그는 왕에게 이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바치게 하여 문사(文士)들을 제거하려는 화(禍)를 꾸몄다. ▶ 주초위왕(‘주’와 ‘초’를 합치면 ‘조’가 되므로, 곧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 사건이 계기가 되어 중종은 조광조 등 사람 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大尹)·소윤(小尹)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윤임이 제게 이르되 경원 대군이 왕위에 올라 윤원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다 ▶ 명종 즉위 후 인종의 외척인 대윤(윤임)과 명종의 외척인 소윤(윤원로)의 권력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대표 기출문장

- 무오사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64·61회
-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광필 등이 처형되었다. 66·65회
- 기묘사화**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64·60회
- 을사사화**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52회
-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61·57회



22위

[근대] 동학 농민 운동

합격비법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고부 민란 [1894. 1.]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심해지자 농민들이 고부 관아 점령	전주 화약* [1894. 5.]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폐정 개혁 안 제시, 집강소 설치 등)
1차 봉기* [1894. 3.]	민란을 수습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하자 전봉준이 백산에서 봉기	일본의 경복궁 점령 [1894. 6.]	일본이 정부의 철병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여 내정 개혁 강요
황토현·황룡촌 전투 [1894. 4.]	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	2차 봉기* [1894. 9.]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농민군이 다시 봉기
정부의 군사 요청* [1894. 5.]	- 농민군을 막지 못한 정부가 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여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 - 일본군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제물포에 상륙	우금치 전투 [1894. 11.]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

필독 기출 자료

1차 봉기	정부의 군사 요청
이용태가 고부로 내려와서 행패를 부린 것은 모두 동학당의 행위라 하며 동학 교도를 잡아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그 무리 4천여 명을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으로 갔다. ▶ 고부 민란을 수습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하자 전봉준이 봉기하였다.	반민들의 형세가 날로 확대되어 성읍이 연이어 함락되어도 백성들은 도리어 기뻐하는 기색을 띠고 오직 관군이 패한 것만 말하였다. …… 왕과 왕비가 크게 노하여, “반민들을 빨리 평정하지 못하면 불순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염려가 있다. 전보를 보내 청국에 원병을 청하라.” 하였다. ▶ 농민군을 막지 못한 정부는 청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전주 화약 이후	2차 봉기
본 감사는 …… 지금 너희들이 병기를 반납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못된 사람들이 소요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고 엄금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선량한 마음을 믿을 수 있다. …… 너희들이 각기 그 고을에서 성실하고 뜻이 있는 자를 뽑아 집강으로 삼되 적격하지 않은 자에게 집강을 맡겨 폐단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주 화약을 체결한 이후 폐정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벌레같은 왜적들이 날뛰어 수도를 침범하고, 임금의 위태로움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 그러므로 각 접(接)들은 힘을 합하여 왜적을 쳐야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라고 불리는 자가 전라도 병력 수십만 명을 이끌고 공주 삼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의 병력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그 기세가 갑자기 확대되었습니다. ▶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개혁을 강요하자, 동학 농민군은 2차 봉기를 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고부 민란**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65회
- 1차 봉기** 황토현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58·56회
- 전주 화약**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63·57·56회
개혁 추진 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65·63회
- 2차 봉기**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하다 65·58회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웠다. 64·56·53회



합격비법 초계문신제, 신해통공의 반포는 기출 자료와 함께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준론 탕평 실시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리는 준론 탕평 실시, 소론과 남인 계열의 시파 등용
초계문신제 실시*	규장각에서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
장용영 설치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함
규장각 설치	- 창덕궁 주합루에 위치한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 - 규장각 검서관으로 박제가·유득공·이덕무 등 능력 있는 서얼들을 등용
화성 건설*	- 수원에 화성을 설치하고 정치적·군사적 기능 부여 -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성 근처로 이장(현릉원)
신해통공 반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문물 정비	-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 수입 -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리한 『대전통편』 편찬 - 종합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이덕무, 박제가 등) 편찬 - 임금의 동정과 국정 운영 상황을 기록하는 『일성록』 편찬을 시작함

필독 기출 자료

초계문신제	수원 화성
초계문신제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제도였다.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본래의 직무를 면제하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졸업하면 익힌 바를 국정에 적용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봉당의 비대화를 막고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정조는 초계문신제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도시로 화성을 육성하였다.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신해통공

좌의정 채제공이 왕께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모두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 정조는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반포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초계문신제 실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재교육하였다. 68·67·64회

장용영 설치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68·59회

서얼 등용 정조는 서얼 출신의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하였다. 49·48회

신해통공 반포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66·65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62·61회



24위

[일제 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

합격비법 무단 통치 시기 일제의 통치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필수 암기 개념

무단 통치	- 조선 총독부 설치: 식민 통치의 중심 기관, 총독은 일본 군인 중에서 임명됨 - 헌병 경찰제* 실시: 군인인 헌병 경찰이 범죄 즉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처벌함 - 조선 태형령* 공포: 한국인에 한하여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분위기 조성: 일반 관리는 물론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도록 강요함 - 제1차 조선 교육령 제정: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등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함 - 서당 규칙 제정: 서당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반일적인 서당의 설립과 서당의 교육 활동을 억압함
경제 수탈	- 토지 조사 사업 실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실시함 - 방법: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여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함 → 신고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해 미신고 토지가 많았음 → 미신고 토지를 총독부에 귀속시킴 -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 증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 확대, 만주·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 증가 회사령* 제정: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필독 기출 자료

헌병 경찰제	조선 태형령
제1조 조선 주차(駐節)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을 담당한다. 제18조 헌병의 복무 및 헌병 보조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 일제는 무단 통치 시기에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피고 박○○은 이○○가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세한 것에 찬동하였다. …… 태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선 태형령 제1조, 제4조에 준하여 처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일제는 한국인에 한하여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토지 조사령	회사령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일제는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 일본 정부는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하여 총독부 제령(總督府制令)으로서 회사령 을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다하되,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신체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 일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 무단 통치**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67·66회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53회
- 경제 수탈**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58회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64·61회



25위

[현대] 대한민국 건국 과정

합격비법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설립 [1945. 8.]	여운형(중도 좌파)과 안재홍(중도 우파)이 연합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선 인민 공화국을 수립	유엔 소총회의 결의 [1948. 2.]	제2차 마·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가 결의됨(유엔 소총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 12.]	- 마·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와 신탁 통치 실시에 대해 합의 - 국내에서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좌익 세력의 대립이 심화됨	남북 협상 [1948. 4.]	- 분단의 조짐이 보이자 김구, 김규식 등이 북측에 남북 협상을 제시하여 실시 -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남북 조선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정읍 발언* [1946. 6.]	제1차 마·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5·10 총선거 실시 [1948. 5.]	-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고, 제헌 국회가 구성됨 -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발생
좌·우 합작 운동 [1946. 7. ~ 1947. 7.]	중도 우익 김규식과 중도 좌익 여운형의 주도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미 군정의 지원이 철회되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실패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8.]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

필독 기출 자료

정읍 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 이승만은 제1차 마·소 공동 위원회(공위)가 결렬되자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남북 조선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는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내전이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의 지망(志望)에 배치되는 어떠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容許)하지 않을 것이다.
- 천만여 명 이상을 망라한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하느니만큼 유권자 수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남조선 단독 선거는 설사 실시된다 하여도 절대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며 다만 기만(欺瞞)에 불과한 선거가 될 뿐이다.

▶ 남북 지도자 회의에서 남북은 남한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마·소 군대의 철수 등을 담은 남북 조선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정읍 발언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54회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60·57회

유엔 소총회의 결의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58회



26위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합격비법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1930년 이후의 주요 활동은 반드시 암기하며, 한인 애국단원의 사진도 체크하자!

필수 암기 개념

수립(1919)	3·1 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
1920년대의 활동	• 비밀 행정 조직 마련(연통제와 교통국), 독립운동 자금 모금(독립 공채, 국민 의연금 모금) • 외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 이승만이 미국에 구미 위원부 설치 • 독립신문 발행, 『한·일관계사료집』 발간 • 국민 대표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 노선을 논의하였으나 일부 세력이 임시 정부를 이탈하면서 세력 약화
1930년 이후 주요 활동	• 한인 애국단 조직: 김구가 조직한 단체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동 • 총칭 정착: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총칭으로 이동하여 정착 • 체제 개편: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로 개편한 뒤, 다시 주석·부주석의 지도 체제로 개편함 • 한국광복군 창설, 대일 선전 포고* 이후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 참가 • 건국 강령* 발표: 조소앙의 삼균주의(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 발표

필독 기출 자료

이봉창의 의거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 문 앞에서 자기 손으로 폭탄을 던진 이 의사는 일왕의 가슴을 서늘케 하고 적의 군중들이 놀라 아우성을 칠 때, 그 자리에서 가슴속으로부터 태극기를 꺼내 들고 바람에 맞추어 뒤흔들며 소리 높여 '대한 독립 만세'를 세 번 부르고 조용히 놈들의 체포를 받았

다.

▶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윤봉길의 의거



그는 뜻한 바를 기어이 성공하려고 식장인 홍커우 공원으로 가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점검한 후, 시라카와 대장의 사진을 얻고 일본 국기 한 장을 사서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29일 새벽이 되자 양복을 입고 어깨에 군용 물병을 메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공원으로 달음질쳐 간 것이다.

▶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된 일왕 탄생 축하 겸 전승 축하식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건국 강령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재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免費修學)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

▶ 임시 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대일 선전 포고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의 한국에서의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 임시 정부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대표 기출문장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59·57회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사료집』을 간행하였다. 57·51회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66회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61·58회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기본 강령을 발표하였다. 68·66·62회



27위

[선사 시대]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

합격비법 반달 돌칼, 고인돌은 반드시 암기하고 다른 유물들도 사진과 함께 파악하자!

필수 암기 개념

사용 도구	• 청동기: 비파형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을 만들어 의식용이나 무기로 사용 • 간석기: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등을 농기구로 사용 • 토기: 민무늬 토기(미송리식 토기*, 송국리식 토기*) 등을 저장 용기로 사용
경제 생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 농경이 점차 중시됨(농경문 청동기*)
주거 생활	반지하인 움집이 점차 지상 가옥으로 변화함
사회 생활	• 농경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잉여 생산물 발생 → 잉여 생산물의 소유 정도에 따라 권력과 계급이 나타나면서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 •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제사장 역할도 동시에 수행(제정일치) •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 외에도 돌널무덤 제작
주요 유적지	의주 미송리 동굴, 여주 흔암리, 부여 송국리, 평창 하리 등

필독 기출 자료

비파형동검  ▶ 중국 악기인 비파와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비파형동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반달 돌칼  ▶ 곡식 이삭을 자르는 농기구로, 등 쪽의 구멍에 끈을 꿰어, 이 줄을 손에 잡고 사용하였다.	미송리식 토기  ▶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로,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송국리식 토기  ▶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민무늬 토기이다.	농경문 청동기  ▶ 농경문 청동기에 새겨진 그림은 농사 짓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인돌  ▶ 고인돌은 당시에 계급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준다.

대표 기출문장

- 사용 도구**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68·66·62회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54·52회
- 사회 생활**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65·63회
고인돌, 돌널무덤 등을 만들었다. 61회



28위

[선사 시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합격비법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의 사진을 살펴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자!

필수 암기 개념

사용 도구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와 뼈바늘*(수공업 도구), 갈돌과 갈판*
경제 생활	농경과 목축 시작, 사냥과 고기잡이 병행
주거 생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원형, 방향)을 짓고 거주
사회 생활	씨족을 기본으로 하는 부족 사회이며, 평등한 공동체 사회
신앙 생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 숭배 사상 등장
예술 활동	조개껍데기 가면*, 치레걸이* 같은 장식품 제작
주요 유적지	서울 암사동, 제주 고산리, 봉산 지탑리 등

필독 기출 자료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갈돌과 갈판
			
▲ 음식의 조리과 저장을 위해 사용한 도구	▲ 식물에서 뽑아낸 가는다란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드는 도구	▲ 뼈로 만든 바늘	▲ 나무 열매나 곡물 껍질을 벗기는데 사용한 도구
움집	집터	조개껍데기 가면	치레걸이
			
▲ 중앙에 화덕이 있는 반지하집	▲ 신석기 시대의 집터	▲ 조개 껍데기로 만든 가면	▲ 짐승의 뼈·이빨로 만든 장식품

대표 기출문장

- 사용 도구**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67·66·63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66·64·62회
- 경제 생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61·56회
- 주거 생활**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39회
- 사회 생활**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52회



합격비법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등재'라고 표기해 놓음])

필수 암기 개념

한성 (하남 위례성)	• 석촌동 고분군: 2호분인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고구려의 것과 비슷함 • 방이동 고분군: 굴식 돌방무덤 • 몽촌토성: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토성 • 풍납토성*: 관직명인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됨
웅진(공주)	• 공산성(등재): 웅진을 지키던 백제의 산성 • 송산리 고분군(등재):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송산리 7호분)*이 유명함
사비(부여)	• 관북리 유적·부소산성(등재): 관북리 유적은 사비 시기의 왕궁지, 부소산성은 부소산을 감싸는 산성 • 능산리 고분군(등재): 사비 시기 왕의 무덤(굴식 돌방무덤), 근처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가 출토됨 • 정림사지(등재): 정림사 터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음 • 나성: 부여 시가지 외곽을 둘러싼 성
익산	• 왕궁리 유적(등재):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였다는 익산 천도설의 근거 • 미륵사지(등재): 미륵사 터, 현재 서탑(미륵사지 석탑*)의 일부만 남아있고, 금제 사리 봉안기가 출토됨

필독 기출 자료

석촌동 계단식 돌무지무덤  ▶ 고구려의 돌무지무덤과 모양이 비슷한데, 이는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보여 준다.	풍납토성  ▶ 대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와 대규모 공공건물 터가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송산리 7호분)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양식이다.
백제 금동대향로  ▶ 백제 금동대향로는 신선이 살고 있는 이상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  ▶ 복원 과정에서 금제 사리 봉안기가 출토되었다.

대표 기출문장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축조되었다. 68·51회

매지권(買地券)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55회

능산리 고분군 근처 절터에서 국보로 지정된 금동대향로가 발견되었다. 51회

미륵사지 석탑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54회



30위

[조선 시대] 세종

합격비법 세종의 업적인 4군 6진 설치, 쓰시마 섬 정벌, 『칠정산』·『삼강행실도』 간행 등은 반드시 암기하자!

필수 암기 개념

체제 정비	• 의정부 서사제 실시: 왕의 권한 일부를 의정부에 넘겨 주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추구 • 집현전 설치 강화: 집현전 학자들이 학문 연구와 국왕의 통치를 자문
대외 정책	• 4군 6진 설치: 김종서, 최윤덕을 보내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 개척 • 쓰시마 섬(대마도) 토벌: 이종무를 보내 왜구 토벌 • 3포(부산포, 제포, 염포)를 개항, 세전선의 수를 제한하는 계해약조 체결
조세 제도 정비	전분 6등법(토지 비옥도)과 연분 9등법(풍흉)*의 공법 실시
문화 발전	•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하고 한글 서적 간행 • 『농사직설』(농업), 『향약집성방』(의학), 『칠정산』*(역법), 『삼강행실도』(윤리서) 간행 • 측우기*, 앙부일구·자격루·혼천의 제작, 갑인자(활자) 주조, 식자판 조립 방법 개발

필독 기출 자료

연분 9등법 각도 감사는 고을마다 연분 (年分)을 살펴 정하되, …… 총합하여 10 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全實)을 상상년, 9분실(九分實)을 상중년, …… 2분실(二分實)을 하하년으로 한다. 1분실(一分實)은 9등분 에 포함되지 않으니 조세를 면제한다. ▶ 세종은 풍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징수하는 연분 9등법을 시행하였다.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반박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 (諺文)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왕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니 어찌된 것이냐. ▶ 세종은 정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문(한글)을 창제하였다.
『칠정산』 편찬 우리나라 일관(日官)들은 역법과 천문으로 때를 맞추는 방법에 소홀한 지 오래되었다. 이에 왕께서는 역법과 천문의 책을 두루 연구하여서 신하들에게 대명력, 수시력, 회회력 등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 『칠정산』 「내편」은 중국의 수시력을,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측우기 제작 호조에서 아뢰기를 “…… 또 외방 각 고을에도 자기나 와기를 사용하여 그릇 을 만들어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량이 역시 빗물의 수량 을 재어서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하여 알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 세종은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만들었다.

대표 기출문장

- 집현전 설치**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66회
- 대외 정책**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66·64·62회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62·55회
- 공법**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65·57회
- 문화 발전**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이 만들어졌다. 63·62회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다. 64·52회